

**김성균**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ri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29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사추세츠 저위험 타운과 시의 3단계 스텝 2경제 재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주정부 제공)

## 매사추세츠, 최대 250명 실내외 공연 허용 도박

저위험 시와 타운부터 3단계 스텝 2 시작  
코로나바이러스 급증으로 방역 완화에 의문 제기  
실내 모임은 25명, 야외 개인 모임은 50명 제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0월 5일부터 시작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낮은 지역 의 경우 3단계 스텝 2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29일 주청사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3단계 스텝 1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매사추세츠 지역 감염 사태가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은 주정부의 방역 제재해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위험 타운은 15개에서 29개로 급증했다.

매사추세츠 1일 신규 >>8면으로 계속

##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 "조만간 이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김용현 주 보스톤총영사가 3년 임기를 마치고 10월 말에 이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주보스톤총영사

김용현 총영사는 29일 줌 회상으로 열린 온라인 동포 단체장 간담회에서 "현재 후임 총영사가 이미 정해졌으며 최소 한달 정도 안에 이임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2017년 12월 29일 보스톤에 부임해 약 3년여간 재임한 김 총영사는 3년간 보스톤 총영사관을 비롯 동포사회를 잘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체장 간담회에 참가했던 단체장들은 이 구동성으로 총영사의 이임을 아쉬워하고 그 간 단체 및 동포사회를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신세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아일린 박**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 보스턴총영사관, 개천절 축하행사 온라인으로

### 개천절 축하와 한반도 평화·번영 염원 동영상 게시 10월 2일 오후부터 총영사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턴총영사관은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온라인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총영사관은 매년 개최하던 국경일 리셉션 대신 한인 동포 및 뉴잉글랜드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와 특별공연 동영상을 총영사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축하행사를 진행한다.

이 온라인 축하 동영상은 ▲한글 학교 어린이들의 개천절 소개 ▲보

스턴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특별 공연 ▲뉴잉글랜드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 한인단체장을 비롯하여 마티 월시 보스턴시장, 로버트 들리오 매사추세츠주하원의장, 브라이언 케네디 로드아일랜드주하원의장, 한국전 참전용사, 평화봉사단, 유학생 등이 참여하여 개천절 축하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였다.

온라인 리셉션 동영상은 10월 2일 오후부터 주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공개되며

https://bit.ly/kcgboston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김용현 총영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뉴잉글랜드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세계최고의 혁신 기술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고 있으며,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인사회 발전 및 한-미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 고 강조했다.

주보스턴총영사관은 “온라인 리셉션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위기에 굴하지 않는 한민족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인과 한인들이 함께 영상 제작에 참여하여 양국간 교류와 협력,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김용현 총영사는 29일 중 화상으로 열린 단체장 간담회에서 “최소 한달 정도 안에 이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현 보스턴 총영사 "조만간 이임"

▶▶ 1면에 이어서

준버몬트 한인회장은 즉석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장들이 함께 감사장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한인동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총영사관이 될 것”을 약속했었다. 특히 보스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 기업 유치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년동안 보스턴 지역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지역사회의 숙원이었던 대한항공 보스턴직항이 창설됐고, 여러 한국 제약회사들이 보스턴에 진출하기도 했다. 공석이던 한인회장도 선출되어 2년째 임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닥친 코로나바

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한인사회를 비롯 대부분의 미국사회가 정지된 상태에서 6개월여를 지나면서 이 같은 변화에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총영사는 동포간담회에서 “이제 보스턴에서 GPS를 쓰지 않고 집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보스턴에 익숙해졌다”고 말하고 “지난 6개월간 코비드 때문에 계획했던 일을 못했었던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보스턴코리아는 김 총영사와 이임 인터뷰를 통해 좀더 자세한 소회와 함께 지난 3년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임하는 김 총영사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 경우 editor@bostonkorea.com으로 질문을 보내면 된다.

editor@bostonkorea.com

**경축**  
**개천절**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제4353주년 개천절을 경축하며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하지 못하고, 한인 여러분과 뉴잉글랜드 지도급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및 공연을 동영상(https://bit.ly/kcgboston)으로 만들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 과도히 제한해 위한 2022년 9월 30일까지 법개정 없으면 10월부터 효력 상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8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문제 해소 없이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재미동포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 씨의 국적법 12조 2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9월 24일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법률조항은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때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10월부터 이 조항은 무효화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족쇄는 한국의 병역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한인 2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해왔다. 한국 국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군 입대 및 웨스트 포인트, 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했다라도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한국인이면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부여된다. 이렇게 복수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한국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이후 3개월 내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병역 의무를 완수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 즉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이와 관련 "병역법으로 인한 한인동포들의 고통을 심분 공감한다"며 "모든 한국의 법이 대체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2년 후까지 당분간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늘집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한인 전종준 변호사(위싱턴 로펌 대표)가 한인 혼혈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크리스토퍼 멀베이를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나온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에는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해 4대5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 5년만에 헌법 불일치를 인정한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 연방 판사 이민신청 수수료 인상 임시 중단 명령

연방법원 10월 2일 시행 직전에 인상 중단 대신 결과에 따라 이민수수료 인상 정책 바뀔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캘리포니아 연방 지법 판사가 10월 2일부터 81%의 시민권신청료 인상을 시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29일 미 이민국의 수수료 변경을 중단해달라는 이민그룹의 청원을 허용해 미 전역의 수수료인상 중단 명령을 내렸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7월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서류 신청 수수료를 평균 20% 인상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법안 하에서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640에서 \$1,160로 폭등하며 심지어 난민신청에서 \$50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저소득 이민자들의 수수료 면제도 사라지게 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민옹호그룹들은 수수료 변경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주 온라인으로 열린 심리에서 이민옹호그룹을 대변한 새미나 바말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임명된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장관 대행이 이민수수료를 변경할 자격이 없으며 저소득 이민신청자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수수료 인상이 발효되



면 극히 어렵고 가난한 이민 신청자들의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인도적인 보호 조차 막게 된다. 또한 이들을 더 가혹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변경 중단 명령을 내렸다.

미 이민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 명령이 내려진 기간동안 기존의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민국은 캘리포니아 제9차 순회법원에 수수료 변경 규정 시행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옹호웹사이트 바운드리스의 공동창시자 덕 랜드씨는 "앞으로 이번 수수료 변경 규정 항소가 얼마나 걸리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곧 다가오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 수수료 정책이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 추석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9/4(금) ~ 10/4(일)

요즘이니까  
면역력  
추석이니까  
정관장

요즘처럼 면역력이 소중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처럼 정관장이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안내**  
10:30am - 6pm  
문자 : 312-493-6677  
이메일 : kgcboseon@gmail.com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3+1**  
자녀제품 1박스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 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김용현 주보스턴총영사는 2020년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뉴잉글랜드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30일 개최, 장학증서 및 장학금 1천달러를 각각 전달했다

## 재미한인장학기금 전체 30명중 보스턴서 6명 수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미국내 재미한인장학기금 수상자 총 30여명중 6명이 보스턴 및 뉴잉글랜드 지역의 유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현 주보스턴총영사는 2020년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뉴잉글랜드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30일 개최, 장학증서 및 장학금 1천달러를 선발된 학생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올해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 선발자는 강하은(MIT), 김노을(MCPHS Univ), 김형준(RI School of Design), 지혜성(Harvard Univ),

홍예림(Umass Amherst) 학생 외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은 학생 1명이다.

이번에 재미한인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지역 총영사관의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미국대사관의 학업성적, 추천서, 에세이, 이력서 심사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김용현 총영사는 “금년 재미한인장학기에 선발된 30명의 장학생중 뉴잉글랜드지역 대학(원)생이 6명이나 포함되었다”고 언급하고, “예로부터 뉴잉글랜드는 인재들이 모여드는 고장이며 올해도 총영사

관 관할 지역에서 한·미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뛰어난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많이 선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한국정부 출연금 등 총 290만불의 기금에 대한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주미국대사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동포 및 글로벌 사회의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지역의 우수한 동포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 3,25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한국전 70주년 기념 참전용사 수기집 발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회장 한선우)는 2020년 6.25 한국전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부터 공모해온 한국전 참전용사 수기와 사진들 모음집 ‘Our Heroes’ 책자를 9월말 발간했다.

4개월간 책자 발행을 기획 주도한 민주평통 장수인 수석부회장은 출판 소감을 통해 “2020년은 6.25한국전 70주년의 특별한 해라

서 수기집 발간과 참전용사묘지에 태극기 꽃기 두 가지의 뜻깊은 행사를 기획했다. 태극기 꽃기 프로젝트도 성공리에 마쳐 많은 참전용사가족들이 감사와 감동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장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수기집을 기획할 때 참전용사로서 자랑스러워 할 내용이리라 예상했지만, 20살 남짓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 가서 눈앞에서 생사를 가르는 전쟁을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장터  
SEOUL JANGTEO

서울 유명호텔의 중화요리 Chef 를  
초빙하여 뛰어난 맛으로 보답합니다.

깊은맛의 국밥은  
오랜 향수를 달래줍니다.

대표메뉴

- 순대국밥
- 돼지고국밥
- 소고기국밥
- 짜장면/짬뽕
- 탕수육/깐풍기
- 양장피/팔보채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구) 북경 in Allston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연례 모금 행사

▶▶4면에 이어서

경험한 실제 스토리는 가슴아픈 것이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뉴햄프셔, 뉴욕, 캐나다 등지에서 한국전 참전수기 20편과 사진자료들이 접수됐다. 아흔을 넘은 고령의 참전용사들은 컴퓨터 대신 연필로 직접 수기를 작성해서 우송했다.

한 참전용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 써줄 손자를 기다린다고 마감을 늦춰달라고 당부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 수석부회장은 “한개씩 자필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과 감동이 컸다. 문필가의 문장이 아니지만 참전용사분들의 손수 쓰신 마지막 기록물로서 그 가족들과 우리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 며 책자발간에 함께 준 평통위원들께 감사했다.

보스톤 평통은 영문으로 출판된 ‘Our Hero’ 책자를 지역의 학교, 도서관, 관공소, 정치인, 재향군인과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에게 보낼 예정이며 수기 공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에게는 평통에서 준비한 ‘Hero 기념품’ 을 보낼 계획이다.

## 10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2년에 설립되어 한국 전통문화를 보스톤 사회에 소개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해 온 한미예술협회가 제9회 연례 모금 행사를 갖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금 행사에는 뉴욕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의 아티스트’ 로 선정된 공예가 명소씨가 참여하며, 해마다 진행되던 사일런트 옥션(silent auction)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10월 14일~18일). 예년처럼 많은 미술가들이 옥션에 작품을 내놓았으며, 이재욱 작가가 옥션 책임자로 수고하게 된다.

2021년의 조던홀 콘서트에 출연할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첼리스트 브랜던 조씨가 온라인으로 동참하여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며,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의 음악감독인 김동민 지휘자도 참여할 계획이다.

예술협회가 올해에 계획했던 행사들은 2월 1일에 보스톤 미술관에서 열렸던 설날 축제를 제외하고 팬

데믹으로 인해 모두 취소되거나 미루어졌다. 그러나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협회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9명의 예술가에게 지난 6월에 팬데믹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이번 해에 진행하지 못한 행사의 대부분이 2021년에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은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더 큰 범위의 커뮤니티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체득했다. 차세대 예술인을 후원하는 노력은 문화와 예술을 소중히 여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올해, 예년보다도 더 많은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

다.” 라고 말했다. 후원금은 세금 면제가 가능하며 앞으로의 문화 행사와 예술가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예술협회의 정정욱 이사장은 보스톤과 인근 지



역의 한인들이 온라인 모금의 자리에서 즐겁고 뜻있는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월 18일(일) 오후 7시 반에 시작

되는 모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info@kcsboston.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kcsboston.org에서 볼 수 있다.



# 서울설령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680  
SeoulFoodBoston.com



# 가주 순두부

캠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캠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 현대 음악가들의 <뉴 뮤직 심포지엄>

## 기획과 진행을 맡은 작곡가 김택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 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개최하는 <뉴 뮤직 심포지엄>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동부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6명의 음악가가 각각 한 회를 맡아 자신이 작곡한 작품이나 연주를 소개하고 관객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다.

이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작곡가 김택수 씨에게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보았다.

▶ 어떻게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는가? 참여하시는 음악가들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동안 '미국에 있는 한국계 작곡가들'을 내 개인 웹사이트에서 이들을 소개해 왔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이걸 좀 모아 놓으면 부족하나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연주자들이 좋은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하는데, 실제로 이 사이트를 통해 연주자들이 한국 작곡가를 발견하는 경우가 생겨서 뿌듯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좀 더 발전시킨 방법으로 한국 작곡가들의 활약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김유경 선생님이 '현대음악 관련 좌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연락을 주셨다. 몇 번의 대화를 통해 선생님의 제안과 내가 이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 합쳐져서 심포지엄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대중 음악과 영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에

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 지구촌이 좁아진(Zoom) 등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층 더 촘촘하게 엮혀진 지금이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 제안을 받은 음악가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모두 흔쾌히 시간을 내어 주기로 하셨다. 우선 이번에는 강사들의 음악적 성향과 지리적 분포를 고려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 음악이 미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청중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한국에 서양음악이 소개된 후 이제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고, 한국은 그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의 클래식 음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악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한국적 정서를 얼마나 참신하게 음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딱 여섯 분만 모시는데, 사실 자신의 자리에서 출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관심이 좀 더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작곡가 김택수>

2014-16년에 코리안심포니 상주작곡가를 역임한 김택수는 서울대학교(화학, 작곡 학사 및 석사)와 인디애나대학교(작곡 박사)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에서 작곡 및 음악이론 교수로



작곡가 김택수 씨

재직 중이다. 그의 작품은 일상 생활에 대한 경험과 기억들, 그리고 근·현대의 한국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 필하모니,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뉴월드 심포니 등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였고, 앙상블 모데른, 피시픽 심포니,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서울시향, 경기필, 부산시향, 평창 대관령 음악제 등이 그에게 작품을 위촉하였다.

<뉴 뮤직 심포지엄>

10월 10일: 박주원 교수(디트로이트, 웨인 주립대학교, 전자음악)

10월 17일: 안진 교수(캘리포니아, UC버클리, 작곡)

10월 24일: 장지혜 교수(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피아노)

10월 31일: 도널드 워맥 교수(하와이 대학교, 작곡)

11월 7일: 이윤지 교수(보스톤, 버클리 음대, 작곡)

11월 14일: 서주리 교수(프린스턴 대학교, 피아노 및 작곡)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동부시간)

접속사이트 주소:

<https://SDSU.zoom.us/j/3049508602>

상세 정보: [kcsboston.org](http://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http://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채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B, Woburn, MA 01801



세계 신경생물학 및 줄기세포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인 김광수(자연대) 박사

# 김광수 박사의 '맞춤형 줄기 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

10월 뉴잉글랜드 포럼 15일 수요일 오후 7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정선, 문리대)가 주최하는 제 4회 뉴잉글랜드 포럼이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 포럼에서는 세계 신경생물학 및 줄기세포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 김광수(자연대) 박사가 '맞춤형 줄기 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란 제목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광수 박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등 뇌신경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69세 파킨슨병 환자 본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치료에 성공했다.

이는 유도만능 줄기세포(역분화 줄기세포, iPS)를 사용한 파킨슨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도해 성공한 첫

사례로, 수십 년의 기초 연구가 임상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9월 16일에 열린 제 3회 포럼에서는 그동안 끊임없는 열정으로 역사 연구를 해온 김은한 박사가 '고선지 장군'이라는 제목으로 그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선사했다.

강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뉴잉글랜드 포럼은 뉴잉글랜드 지역뿐 아니라 시카고, 워싱턴 DC, 뉴욕 등에서도 활발히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열띤 관심에 부응하고자 10월과 11월에는 한 달에 2차례 포럼을 열 계획이다.

10월 31일(토) 오후 7시에 열린 포럼에서는 박찬호 박사가 "From

Slavery to Discrimination- Racism in US: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Asian Immigrants' Untold Story"란 제목으로 강의한다. 박찬호 박사는 미국 흑인의 250년 노예 역사, 노예 해방 후 흑인들의 삶, 민권운동, 아시안 이민 역사와의 관계, 이민 1세대의 역할과 다음 세대와의 연관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11월 둘째 주 토요일 포럼에는 장용복 박사의 '한국서예사', 넷째 주 토요일에는 최석기 박사의 '과학으로 푸는 근대 서양사'가 기획되어 있다.

뉴잉글랜드 포럼은 동문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한인 교민들에게 열려 있다. ZOOM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 (snu-aane@gmail.com)로 참여신청을 하거나,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줌(ZOOM) 버튼을 누르면 된다.

<https://www.snu-aane.org>  
bostonkorean@hotmail.com

## 고대 교우회 온라인 정기 모임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교우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가을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김명근(건축91) 회장은 "지난 7월 온라인 모임을 가졌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그간의 운영진의 변화를 통지하고, 팬데믹기간의 상황과 그 이후 변화들을 생각하며 정보와 안부를 묻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번에 보스톤 지역에 새로 온 교우나 아직 교우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우분 중 아시는 분 있으시면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는 70년대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교우들 간의 따스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또한 보스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미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매년 설날을 전후한 2월, 가을 추석 정기모임 외 여름 캠핑, 골프, 저녁 소모임 등 비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기간 동안 전체 모임은 온라인으로 갖는다.

교우회모임에 대한 문의는 김민용(컴공05) 총무에게 하면 된다 (mkim2@gsd.harvard.edu) bostonkorean@hotmail.com

##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급가속 능력 향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 Y 롱 레인지 울힐 드라이브의 경우 \$2,000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로에서 60마일까지 도달 속도를 현재의 4.8초에서 4.3초로 단축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테슬라는 모델 Y 25일 소유주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료 업그레이드 메시지를 보냈다. 가속 향상(Acceleration Boost) 업그레이드는 속도를 0.5초 단축하는 것이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향상도를 훨씬 더 인상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평이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클릭하기 전 꼭 필요한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측은 이 서비스를 구매한 후 48시간 이후에는 리펀드하지 않는다는 방침

이다. 테슬라는 2019년 12월달 모델 3 듀얼모터 울힐드라이브 차량에 대해 유료 가속향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당시 4.4초이던 제로투십스티 3.9초로 줄었다. 최고 장점은 테슬라가 이 같은 업그레이드를 단순한 인터넷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룬다는 점이다. 비록 거액 \$2,000을 지불해야 하지만 차를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테슬라는 이 업데이트를 통해 0.5초를 단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단축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테슬라 운전자들은 다운로드 후 1초가 단축됐다는 비디오를 올리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i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왜 하필 이 때에?" 전문가들 주 방역 완화에 의구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완전한 증가 추세에도 29일 주정부가 3단계 스텝 2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보스톤글로브는 30일 주정부가 다음 단계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지역 감염병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주정부가 더 많은 학교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특별히 낮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에 실내 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더구나 최근들어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확연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베이커 주지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감염 추적활동과 미국 내 다른 주의 경제 재개 활동을 지켜 본 결과 "신규 방역규제 완화가 감염율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부터 감염위험이 낮은 타운 및 시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최대 250명 실내 공연을 가질 수 있다. 야외 공연도 최대 50% 수용인원에 250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트램폴린, 장애물 코스, 롤러링크스, 레이저 태그 등의 시설은 50%의 수용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백화점 물 등에서 옷을 입을 수 있는 피팅룸 운영도 가능해진다. 짐,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비행스쿨 등도 50% 수용 인원 하에서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완전한 증가 추세에도 29일 주정부가 3단계 스텝 2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진행이 가능하다.

현재 감염율이 높은 15개 타운은 여전히 3단계 스텝 1을 유지한다. 추후 다시 고위험 타운으로 편입될 경우 주정부는 재개를 되돌려 이전의 스텝으로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지사의 방역완화 방침 발표 한시간 후 주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업데이트에 따르면 병원 입원율은 40%가 증가했으며 양성확진율도 26%로 급증했다. 7일 평균 양성확진율도 0.8%에서 1%로 치솟았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중요한 지수라 지적한 일일 평균 양성확진율은 29일 4.4%로 최근 한달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특히 실내 공연장 최대 250명 허용에 관해 많은 의문을 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내의 경우 바이러스가 에어본 상태가 되어 떠도는 시간이 길어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보스톤메디컬센터 특별병과 과장인 나히드 바텔리아 박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실내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큰 문제는 이번 경제 재개가 초중고나 대학들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연장 및 종교행사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무방비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노스이스턴 감염병리학자 새뮤얼 스카피노 박사는 아주 감염율이 낮은 메인주의 타운 밀리노켓의 8월 결혼식에서 무려 100여명의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지적하며 이처럼 방역이 느슨한 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감염율이 높은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스카피노 박사는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 재개와 공중보건 감염자료가 합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라리 "사업체 지원책을 한차례 더 집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최대 250명 실내 및 야외모임 허용

▶▶1면에 이어서

확진자는 708명을 기록해 지난 5월 18일 1천명이하인 669명을 기록한 후 4개월 반만에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1천명에 근접해가고 있다.

주정부는 10월부터 감염위험이 낮은 타운 및 시의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최대 250명 실내 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야외 공연도 최대 50% 수용인원에 250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트램폴린, 장애물 코스, 롤러링크스, 레이저 태그 등의 시설은 50%의 수용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백화점 물 등에서 옷을 입을 수 있는 피팅룸 운영도 가능해진다. 짐,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비행스쿨 등도 50% 수용 인원 하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실내 모임은 모든 타운과 시에서 최대 25명으로 제한되며 야외 개인 모임은 최대 50명으로 제한된다. 단 야외 공공 모임 또는 이벤트는 스텝 1 단계 타운에서 여전히 50명, 스텝 2단계 타운에서는 100으로 늘어난다.

주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5월 18일 주정부는 공중보건 자료를 바탕으로 4단계의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했었다. 지난 달부터 행정부는 주내 351개 타운별로 인구 10만명당 일일평균 감염자 수, 평균확진자율, 전체 감염자 수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저위험 타운은 지난 3주간 연속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시와 타운을 말한다" 고 밝혔다.

### 3단계 스텝 2 진행 못하는 '레드' 타운들

최근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세가 증가하면서 스텝 2로 진행하지 못하는 타운이 9월 30일 현재 15개에서 29개 타운으로 늘었다. 이들 타운은 지난 2주간 인구 10만명당 8명의 확진자 이상이 발생한 타운들이다.

Attleboro, Avon, Boston, Chelsea, Dedham, Dracut, Everett, Framingham, Haverhill, Holliston, Lawrence, Lowell, Lynn, Lynnfield, Marlborough, Methuen, Middleton, Monson, Nantucket, New Bedford, North Andover, Plainville, Revere, Saugus, Springfield, Tyngsborough, Winthrop, Worcester, Wrentham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요가송의5분요가



YOGA SONG HAYEON

# 앉아서하는, '왕초보'를 위한 요가

“요가요?  
예전에 해보긴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처럼 뻣뻣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요가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나와 맞지 않다' 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가든 어떤 운동이든 취미활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나와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하기 싫어지죠. 남들이 좋다고 하니,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게 되구요. 그래서 이번주는 아무리 뻣뻣해도, 요가를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요가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굳이 따로 매트를 준비않으셔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몸을 가볍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10min Neve done Yoga?- 왕초보 편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칭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필라테스 운동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번째로 배울 동작은 사이드 스트레치입니다.

STEP 1 : 편안한 앉은 자세를 취한 후, 천천히 오른손을 왼쪽 사선 방향으로 뻗어주세요.

POINT! :

-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어깨의 긴장감을 풀고 스트레치해주세요.  
STEP 2 : 들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숨을 내쉬면서 몸통 옆면과 팔을 길게 늘려줍니다.

STEP 3 : 2-3회 반복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치해주세요.



두번째는 두다리를 앞으로 뻗는 전굴자세입니다.

STEP 1 : 들이쉬는 숨에 척추를 곧게 펴시키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접어 허벅지 쪽으로 가져갑니다.

POINT! : 다리 뒷면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무릎을 접고 진행합니다.

STEP 2 :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어깨와 목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시고, 길게 2-3호흡 유지합니다.

무리해서 많이 내려갈 필요 없어요 가슴이 허

벅지에 안 닿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 조금 가까워지는 날이 올거예요!



세번째 자세는 앉은 전굴자세 변형입니다.

STEP 1 :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손을 뒤로 보내서로 각지를 껴줍니다.

STEP 2 : 두 손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POINT! : 견갑골을 서로 조여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고 어깨도 함께 스트레칭해줍니다.

STEP 3 :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상태를 유지하고 3-5호흡 이어갑니다.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쉽고 간단한 10분 스트레치 동작들이니,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고, 하시고 몸이 어 떤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알려주시구요.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한번 결심하고 강도있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단 몇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매일 투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앞에 알려드린 앉아서 하는 젠틸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좀더 열어주는 습관을 길러 보는 건 어떨까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 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Janice & Li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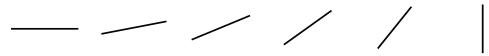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 Compass Services

###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 코로나 부양책 타결 안돼, 목요일 협상 계속

## 하원은 2.2조 히어로스법안 2.0 단독 표결의사 1일 오후 협상 앞두고 오전 백악관과 펠로시 하원 설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하원회기 마감을 목전에 두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9월 30일 8월 7일 이래 처음으로 대면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목요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합의점 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아주, 아주 간극이 크다”며 양측의 합의안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로 통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므누신 장관과 90분간의 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장관과 나는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으며 좀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화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30일 밤 히어로스법 2.0을 표결에 부칠 것이다. 미국의 경제 재난과 공중보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표결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며칠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다.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좀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어디에서 끝맺을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사업체 손배소 보호, 지원안 규모 등 핵심 사항에 있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나 10월 2일 하원 휴회를 앞두고 협상 시한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므누신은 기대를 모았던 백악관측의 카운터오퍼는 프로블럼솔버 스코커스츠키가 제안했던 1.5조안과

유사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 수정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의 악화여부에 따라 최대 2조원까지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어서 실제적 양측의 지원안 규모는 아주 근소한 차로 좁혀들어갔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1조달러 이상의 부양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상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1일 목요일 오전 백악관의 맥케니 대변인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측은 상호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1일 오후 양측은 계속 협상에 들어가기 전 서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별도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은 2.2조 독자 부양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히어로스법안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안으로 상원에 도착과 더불어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하원이 표결에 부치는 히어로스법안 2.0은 과거 법안을 축소된 것으로 1200 개인부양수표, 추가 고용급여, 지방정부 지원, 학교 및 우체국 지원, 선거 필요자금 지원 등이 담겨 있으며 대규모 무급휴직이 예고된 항공사들을 위한 지원도 담겨있다.

민주당 하원 중도성향의 의원들과 이번 선거에서 박빙인 상황의 의원들은 펠로시 등 지도부의 협

상 타결 부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현재 2.2조달러 규모가 이미 많이 타협한 금액이라며 더 이상 물러날 의사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주 및 지방 정부 보조와 손배소 보호조항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의 타결 여부에 따라 대선 전에 부양수표가 전달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세청은 케이스 법안 통과 이후 2주만에 8천만 가정에 체크를 전달했다.

hsb@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24<sup>99</sup>**

---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b>Plus 상품</b> KBS, MBC, SBS, EBS, YOUTUBE</p> <p><b>\$24<sup>99</sup></b></p>	<p><b>Premium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p> <p><b>\$34<sup>99</sup></b></p>	<p><b>VIP 상품</b>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p> <p><b>\$39<sup>99</sup></b></p>
---	--	---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TBO KBS MBC SBS EBS tvN net Olive OCN

**케임브리지한인교회**

(3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251-9611)  
 교회 홈페이지: [www.firstkoreanchurch.org](http://www.firstkoreanchurch.org)  
 Facebook: 케임브리지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Instagram: 케임브리지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Online Worship (주말 오전 11시): YouTube 'FKCC Media Ministry'  
 (교외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한인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 사역에 가치를 두고 40여년을 한결같이 청년 (유학생) 사역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엠 'FKCC'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위 전화나 교회 이메일 info@firstkoreanchurch.org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의 타결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미 대형 기업들의 감원 가능성이 점차 본격화 되고 있다. 아메리칸항공 모습

# 코로나19 구조조정 본격화?... 항공업계 · 금융권 감원계획

## 아메리칸항공 1만9천명 · 유나이티드항공 1만3천명 감축 계획 골드만삭스 · 웰스파고 · 씨티그룹 등도 구조조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운섭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위기가 깊어지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계획을 내놓고 있다.

먼저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은 당국의 재정 지원이 수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일(현지시간)부터 1만9천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메리칸항공은 지난달 25일 이번 구조조정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스티븐 브누신 미 재무장관이 재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항공

사 직원의 급여 지원용 250억달러(약 29조 2천250억원) 예산 문제는 다른 사안에 대한 협의와 맞물려 여전히 하원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자 아메리칸항공이 구조조정 일정을 미뤄달라는 당국의 요청에도 강행 계획을 밝히며 브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간 신속한 타협을 압박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4대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항공도 동참, 당국의 결단이 없을 경우 인력 1만3천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대형 항공사가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메리칸항공

이 시한으로 못 박은 1일까지 의회가 재정 지원책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원의 협조로 이번 주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같은 날 "조직 개편에 따라 비영업 부서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 400명가량 또는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이 감축될 전망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행과 미국 3위 은행인 씨티그룹 역시 최근 몇 주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84만건, 여전히 높아

## 전망치 맞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로이터 '추가부양 필요성 부각'

(워싱턴=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신규 실직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노동부는 1일(현지시간) 지난주(9월 20일~2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3만7천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87만3천건에서 3만6천건 줄어든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주 연속 100만건 미만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치(85만건)보다도 적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천17만건으로 98만건 감소했다.

미 노동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시사하는 결과이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의미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업과 실직자들을 위한 미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을 부각시킨 결과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 들어 월트디즈니, 올스테이트, 로열더치셀, 골드만삭스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감원 계획을 발표해 서비스 부문 일용직을 위주로 시작된 해고 사태가 관리직, 정

규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항공업계도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3만명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 사태는 3월 셋째 주(330만건)부터 본격 시작됐다.

같은 달 넷째 주에 687만건까지 치솟은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주 연속 10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22만건 수준이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 최고 기록은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의 69만5천건이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65만건까지 늘어난 바 있다.

한편, 이날 미 상무부는 8월 소비자출이 1.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1.5%↑)보다는 회복세가 다소 주춤했다.

firstcircle@yna.co.kr



# 신신마트

##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신신 가을 이벤트**

오뚜기 설렁탕 혹은 사골곰탕

- 1 FREE \$150.00 or more
- 2 FREE \$250.00
- 3 FREE \$350.00 or more

###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타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타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 대선 1차 TV토론 7천310만명 봤다

## 트럼프가 좋아하는 폭스뉴스 1위, 역대 대선 시청율중에선 3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첫 맞대결 토론을 7천300만명 넘게 지켜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60년부터 시작한 미 대선 후보 TV토론의 시청자 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1일(현지시간) 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렸던 TV생중계 토론은 미국 내에서 약 7천310만명이 시청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간 첫 토론 시청자 수가 8천400만명으로 역대 최고이며, 1980년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의 1차 토론이 8천60만명으로 2위를 기록 중이다.

전날 ABC, CBS, NBC, 폭스뉴스 등 미국 방송 4사의 이번 토론 시청자 수가 4년 전보다 35%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와 최종 집계는 예상보다 훨씬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온 셈이다.

주요 방송과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중 폭스뉴스 시청자가 1천780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ABC 1천260만명, NBC 96만명, CNN 829만명, MSNBC 719만명, CBS 638만명, 폭스TV 543만명 순이었다.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25~54세 나이대에서도 역시 폭스뉴스가 53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ABC(490만명), NBC(411만명), CNN(352만명), 폭스TV(247만명), CBS(218만명), MSNBC(173만명)가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역대 최고의 케이블TV 시청률, 두 번째로 높은 전체 TV 시청률"이라며 "언젠가는 가짜 미디어들이 날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2차 대선 후보 TV토론은 이달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honeybee@yna.co.kr

# "코로나19 가짜뉴스 추적해보니 최대 원산지는 트럼프"

영어기사 3천800만건 분석, 허위정보 38% '트럼프 입에서 말라리아약 극찬이 대표적...가짜뉴스 중엔 음모론도 다수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허위정보의 최대 원산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영어로 작성된 코로나19 관련 기사 3천800만건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통된 전체 허위정보의 38% 정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을 끼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치료제'가 있다는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산한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11개에 달하는 허위정보, 음모론이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신의 선물', '게임체인저'라는 말을 써가며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찬사를 보냈다.

음모론 중에는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시기에 맞춰 코로나19를 만들었다는 의혹, 최초 감염자가 중국 우한에서 박쥐 수프를 먹은 사람이라는 의혹 등이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소독제를 인체에 주입하는 것이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연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분석 기사 중에 허위정보가 포함된 것들은 3%에 조금 모자라는 11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코넬대의 새러 애버네가는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둘러싼 허위정보의 최대 동력이라는 점이 가장 놀랍다"며 "실제 세계에 심각한 영향

보건 전문가들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정보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조슈아 샤프테인 박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잘 하지 못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허위정보"라고 지적했다.

jangje@yna.co.kr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반도체 끌고 후 밀고...한국 수출, 코로나 뚫고 반등 성공

조업일수 영향에 주요 품목 · 수출시장 일제히 회복세, 정부 "긴장 늦추지 말아야...수출 디지털 전환대책 곧 마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들이 활기를 되찾고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그러나 조업일수 영향이 있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갈등과 같은 위험 요인이 아직 상존하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 7개월 만에 수출 증가...조업일수 고려하면 아직 '마이너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자 7개월 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수출 증가율 7.7%는 2018년 10월(22.5%)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과거 장기부진 시기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수출이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반등하기까지는 2001년 IT버블 때는 13개월,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2개월, 2015년 저유가 때는 19개월이 걸렸다.

9월 총수출 규모는 480억5천만달러, 일평균 수출액은 20억9천만달러로 모두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

복된 것이다. 작년 평균 월별 수출 규모는 452억달러, 일평균 수출액은 21억8천만달러였다.

지난달 수출이 반등한 데는 일단 조업일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작년에 추석 연휴가 9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0월로 밀리면서 9월 조업일수가 2.5일 늘었다.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할 경우 일평균 수출은 4.0% 감소했다.'

◇ 반토막났던 자동차수출도 플러스 전환

주력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 시장에서는 회복세가 나타났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플러스를 기록한 품목은 총 10개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 수출의 1~3위 품목인 반도체(11.8%), 일반기계(0.8%), 자동차(23.2%)는 23개월 만에 일제히 성장세를 나타내며 전체 수출을 떠받쳤다.

반도체는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며 올해 처음으로 90억달러대를 돌파했다. 수출액과 증감률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최고 실적이다.

미국, 유럽, 인도 등 모바일 주요 시장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판매량 부진이 예상보다 적은 데다 재택근무 및 홈스쿨링 확대로 노트북 수요가 계속 늘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일반기계는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출액과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5월 감소율이 -54.2%에 달



했던 자동차는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미국,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등 해외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의 수출단가 상승이 우리 수출의 호재로 작용했다.

가전(30.2%)과 이차전지(21.1%)는 반도체와 더불어 증감률로 올해 최고 실적을 냈다.

바이오헬스(79.3%)와 컴퓨터(66.8%)는 1년 넘게 호조세를 이어갔고 차부품(9.4%)과 섬유(11.4%), 철강(1.8%)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선박(-3.0%), 디스플레이(-1.9%), 섬유화학(-5.3%), 무선통신기기(-11.4%), 석유제품(-44.2%)은 여전히 부진했다.

15대 주력품목 외 나머지 품목들도 코로나19 이후 수출액과 증감률이 모두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전체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화장품(48.8%), 농수산물(18.3%), 정밀화학원료(18.4%), 생활용품(16.1%)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 정부 "4대 시장에서 모두 증가...희망적"

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8.2% 증가하는 등 미국(23.2%), EU(15.4%), 아세안(4.3%)을 포함한 4대 시장이 23개월 만에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아세안은 코로나19 이후 두 자릿수대 감소를 지속하다 7개월 만에 반등했다. 4대 시장은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한다.

4대 시장 외에는 인도가 28.2% 늘었으며 일본(-6.0%)과 중동(-9.7%), 중남미(-27.6%), CIS(-16.6%)는 회복이 더뎠다. 다만 일본과 중동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산업부는 수출이 7개월 만에 플러

스로 전환한 것 외에도 세부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총수출액 400억달러대'와 '일평균 수출액 20억달러대'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동시에 복귀해 수출 규모 면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10개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을 떠받쳤고, 오랫동안 부진했던 자동차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외 경기변동에 민감한 일반기계, 철강, 섬유 등의 품목이 오랜 부진에서 벗어난 것은 주요 수입국들의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며 "4대 주요 시장 수출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점도 희망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2nd - OCT. 8th, 2020

##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Gobo 우영 LB <b>\$1.99</b>	Bushel Spinach 부셀 시금치 <b>2\$3</b> BUN./FOR	Pomegranate 석류 EA. <b>\$2.99</b>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b>\$0.79</b>	Fuji Apple 후지사과 PREMIUM QUALITY/LB <b>\$1.49</b>
Kabocha 단호박 LB <b>\$0.79</b>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3종 SOFT/SILKEN/FIRM/14-16OZ. <b>\$1.29</b> PKG.	Clementine 클레멘타인 3 LB <b>\$4.99</b> BAG	Oriental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b>\$1.99</b>	VEGE QUEEN Dried Persimmon 꽃감 1 LB/PKG. <b>\$6.99</b>

###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8.99</b>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큐용 생 돼지갈비 LB <b>\$3.49</b>
Fresh Whole Chicken 생 통닭 LB <b>\$1.79</b>	Frozen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LB <b>\$8.99</b>
boneless Smoked Duck 훈제오리 HALF/LB <b>\$14.99</b>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양념 LA갈비 LA STYLE LB <b>\$13.99</b>

###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TONGTONGBAY Frozen Sliced Pollock Fillet 통통배 동태 전감 14 OZ./PKG. <b>\$3.99</b>	Frozen Skull Island Tiger Prawns 냉동 스킨 아일랜드 타이거새우 U/6-LB <b>\$16.99</b>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Frozen Loliigo Squid 냉동 한치 20-25 CM/LB <b>\$5.99</b>	SUHYUP Frozen Dried Yellow Croaker 수협 냉동 영광 굴비 20 PCS/PKG. <b>\$29.99</b>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b>HOT SALE</b> <b>FRI/SAT/SUN ONLY</b> 금,토,일 한정판매
SUHYUP Frozen Cutted Pollock (Headless & Gutless) 수협 냉동 갈꿈 코다리 17.63 OZ./PKG. <b>\$5.99</b>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b>\$6.99</b>

### SMART CARD MEMBER ONLY

<b>H MART SMART CARD ONLY</b> HARU HARU Medium Grain Rice 하루하루 마이 햅쌀 NEW CROP/15 LB <b>\$13.99</b>	<b>H MART SMART CARD ONLY</b> CJ Cooked White Rice CJ 햅반 7.4 OZ. X 12 BOWLS /BOX <b>\$12.99</b>
<b>H MART SMART CARD ONLY</b> KWANGCHUN Premium Green Tea Seaweed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ORIGINAL/GREEN LAVER 0.71 OZ. X 10 EA./BOX <b>\$9.99</b>	<b>H MART SMART CARD ONLY</b> GLICO Pocky 글리코 포키 CHOCOLATE/STRAWBERRY/COOKIES/ 3.81-4.45 OZ. <b>\$2.99</b>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NEW CROP/ 40 LB <b>\$29.99</b>	THREE CRAB BRAND Fish Sauce 삼계 순멸치 액젓 24 FL.OZ. <b>\$3.99</b>	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소스 SOY SAUCE FOR COLD NOODLE/ 16.7 FL.OZ. <b>\$3.99</b>	GO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5.5 LB <b>\$3.99</b>	HAIO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곰치 통조림 14.1 OZ. <b>2\$5</b> CANS/FOR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ASIAN STYLE STARCH NOODLES/ 1.5 LB <b>\$2.99</b>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시골곰탕 16.9 FL.OZ. X 6 EA./BOX <b>\$9.99</b>	CHORIP DONG Assorted Fried Fish Ball 초립동이 순생선살 종합어묵 1.1 LB <b>\$2.99</b>	HAIO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FRIED/VEG./KIMCHI/ 2.65 LB <b>\$4.99</b>	LOTTE Popping Corn Chips 롯데 꼬깔콘 ORIGINAL/GRILLED CORN/ 5.08 OZ. <b>\$2.99</b>
ORGANIC FARM Organic Peeled Roasted Chestnut 유기농장 유기농 구운간밤 USDA ORGANIC 3.52 OZ. <b>2\$3</b>	BOHAE Maewon Prime 보해 매원 프리미엄 PLUM EXTRACT CONCENTRATE/ 500 mL <b>\$7.99</b>	STAR SPORTS Handler Set 스타 스포츠 핸들러 세트 <b>\$14.99</b> <del>←\$19.99</del>	LMYH Knife Sharpeners LMYH 칼갈이 EA. <b>\$7.99</b> <del>←\$11.99</del>	HELLO Electric Multi Kettle 헬로! 무선 스텐 멀티 전기주전자(라면포트) 1.2L/EA. <b>\$17.99</b> <del>←\$24.99</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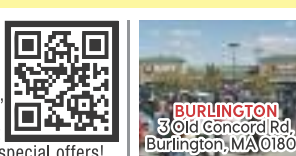
천년 김치

##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 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수잔 안**  
339.224.1512  
susan@bostonpremierrealty.com

## OUR AGENTS



**이제봉**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



**애나 정**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김원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주승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승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 FEATURED LISTINGS



###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트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 LISTINGS



###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영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넬,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sking \$999,000



###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영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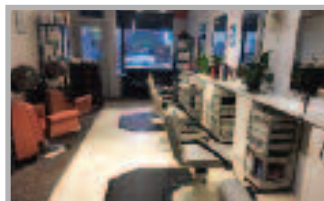
Asking \$200,000



###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NEW



###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Asking \$40,000 Price Reduced



###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급매



###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sking \$320,000



###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하게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영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영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 '띄워야 산다'...항공업계, 코로나시대 돌파구 찾는다

## 여객기→화물기 개조...이륙·착륙지 같은 국내 상공 관광 비행 전세기 운항 확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수익 다각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를 띄우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 중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는 작업에 더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LCC)는 국내선 취항 확대, 항공권 할인 이벤트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 사람 대신 화물 옮긴다...여객기→화물기 개조

올해 초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면서 여객기 운항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일부 항공사의 국제선 노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5~20% 수준으로 줄었다.

여객 운송 감소는 자연스럽게 항공사들에게 화물 운송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 벨리(하부 화물칸)를 활용해 화물 운송을 강화한 데 이어 지난달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다.

대한항공은 B777-300ER 여객기 2대의 객실 좌석과 기내 전기배선 등을 제거하고, 화물을 고정할 수 있도록 바닥에 규격화된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세계 최초로 A350-900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다. 이코노미 좌석 283석을 제거해 화물 탑재 공간을 확보하면서 총 23t의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됐다.

B777-200ER 여객기 2대의 '뱅크'(승무원 침상)를 분리해 대당 2t의 추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LCC인 진에어[272450]는 추석이후 B777-200ER 기종을 개조해 화물 전용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편 운항이 줄었지만, 비정기편인 전세기 운항은 늘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편도기준 158편의 전세기를 운항해 약 3만5천여명의 승객을 수

송했다.

이달에도 한국무역협회 주관 기업인 중국 충칭 수송,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베트남 하노이 수송, LG화학[051910] 직원 중국 난징 수송 등 전세기 21회 운항을 편성했다.

◇ 착륙하지 않고 외국 하늘만 둘러보는 관광비행도 검토

"공항에 가기만 해도 쉼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여행이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은 못가지만 이러한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목적지 없이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관광 비행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4·25일 각각 국내 상공을 약 2시간씩 비행하는 'A380 관광 비행'을 진행한다.

A380은 이달 24일과 25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강릉, 포항, 김해, 제주 상공을 비행하고 오후 1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첫 관



광비행 항공권 310석은 모두 '완판'됐다.

LCC도 제한적인 관광비행을 시작했다. 일반인이 대상이 아닌 항공 관련 학과대학생을 위한 체험 행사로 운영중이다.

에어부산[298690]은 지난달 10일부터 대학생들을 태우고 관광비행을 했다. 10일 위덕대 항공관광학과 학생 79명을 시작으로 부산여대, 배재대, 대원대, 신라대 학생들이 목

적지 없는 비행을 경험했다.

제주항공[089590]도 지난달 25일 부산여대 학생 100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착륙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상공이 아닌 해외 상공을 비행하는 관광 비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관광비행의 경우 면세품 구매가 허용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pc@yna.co.kr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10월 10일 10시

# 코로나나극복 한겨레 걷기 한마당

2020. 10.10 (Sat) 10am  
Woburn Horn Pond

- ✓ 가족단위로 걷기
- ✓ 안전거리 유지
- ✓ 홍삼선물 증정
- ✓ 애완동물 환영



모이는곳

Lynch Elementary School 주차장  
10 Brantwood Rd Winchester MA 01890

매사추세츠 한인회 주최

후원 : 보스톤 총영사관 | 재외동포재단 | 보스톤 정관장

경품



정관장 홍삼원골드

걷기 이후 1가정에 1박스씩  
면역력 높일수 있는  
정관장 홍삼제품 증정

#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인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혁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 (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라모니아 보스톤  
보스톤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래  
사라 제럴드

###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QR 코드 스캔  
<https://bit.ly/2JJ6ZdT>

미사는 본당 성전에서 모든 미사는 본당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합니다. COVID-19관련 신자분들 유의사항은 본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공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 골프 레슨

US **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국궁 양궁 연습

## 국궁 양궁 연습에 초대합니다

코비드 19로 위축된 우리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Open Air 로 초대 합니다. 현재는 Session 마다 최대 5 가족만 함께 활 쏘며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서로 3 meter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활을 쏘며, 활과 화살을 사용 전후 소독해서 사용합니다.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6월 1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강습과 연습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후 2:00- 3:30, 3:30-5:00 (토1, 토2, 일1, 일2) 원하는 Session을 예약하세요. 활과 화살을 제공하며, 강습과 연습은 모두 무료입니다.

10분전 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예약: taewon.jin@Gmail.com, 603-205-6679  
주관: KAYP Youth program, director Taewon Jin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오세경  
전직 보스턴 의대교수

# 어느 여름날의 명상 (1)

올 봄에 갑자기 들어닥친 코로나의 돌풍은 창앞까지 찾아온 봄의 전령도 반갑게 맞아주기가 조심스러웠다. 이 역풍은 여름조차 통채로 삼켜버리더니 이제는 이 위기가 언제나 밋으려나하는 불안 속에서 벌써 가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내가 속한 운동클럽이 폐쇄되어 단체운동의 길을 잃게되었다. 혼자서라도 운동은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웃을 산책하는 것이 어느듯 나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다행이랄까, 내 이웃에는 잘 손질된 대저택들이 즐비하다. 이 저택들의 소유자의 대다수는 유대인이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동양인이거나 아니면 백인과 결혼한 동양인일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본토백이 청색의 혈통 (Blue Blood)도 점점 물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뉴턴에 있는 여러개의 마을중에도 내가 사는 마을은 각집의 년 평균 수입이 \$100,000을 넘는 부촌이라고한다. 우리집은 아마 그중에서 가장 작은 집에 속할것이다. 그러나, 지하층에 있는 남편의 서재에 20,000권이 넘는 장서와 2,000여장의 레코드를 수장할 수 있었고 여기서 내 남편과 꿈같은 19년의 결혼생활을 한곳이니, 내집은 그크기를 막론하고 정녕 즐거운 집이고 여기서 내 여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세계를 휩쓸은 코로나의 위세는 지난 6개월동안 미국에서만 195,000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이 숫자는 미국이 한국동란 이후에 미국인이 겪은 모든 전쟁의 사상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걸친 흑인 인권운동 (Black Lives Matter)은 이 전염병의 전파를 더욱 악화시켜서, 의술이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미국이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속출하고 있으며 그 기세는 아직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있다. 이러한 불운에도 불구하고 백인우월주의를 고집하는 공화당의 60%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하니 백인 우월주의가 얼마나 미국인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를 상기시켜준다. 이들간의 권력다툼에 끼여있는 동양인,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흑인들의 약탈과 방화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교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한다. 강력범이 많아지니 더 이상은 미국에 살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수주의 백인들의 사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구는 다민족의 수가 더 많아져서 보수파의 백인들은 소수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예로 지난해 하버드 입학생들의 50% 이상이 백인이 아닌 다민족이었다. 흑인 인권 운동의 항쟁은 노예해방을 선언한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끈임없이 전개되는 사회적 만성질병이며 이 문제는 미국의 흑인들이 지속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하는 오랜 투쟁이 될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결과는 수많은 사상자의 문제인데 오늘은 이런 죽음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려한다.

죽음은 생물학 견지에서 보면, 세포가 분열할때마다 우리의 세포가 지니고 있는 생명줄이 (telomere) 조금씩 줄어들어 그 이상 줄어들수 없게 될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물, 특히 동물은 일정한 길이의 생명줄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는

100년을 중심으로하여 ± 20%, 즉 80-120세가 우리의 수명인셈이다. 물론, 우리 몸속의 정상세포가 악성으로 변형되면 이들은 자신의 생명줄을 연장시키는 효소를 가지게 되어 주체 (host)가 소멸한 후에도 조직배양을 통하여 무한히 살아남게된다. 그러나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 (3x10<sup>13</sup>)가 동시에 악성으로 변형되지 않는한, 우리의 생명은 끝을 내게 되어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는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을 두고 비창한 음악을 작곡하였으며 모차르트는 36세에 요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서 경쾌하고 명량한 음율을 많이 남겼다. “신은 죽었다” 라고 큰 소리를 하던 영국의 수학자 베트랜드 러셀은 죽음이 임박해오자 이를 두려워하여 공포에 떨었다고한다. 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벨리 그레함 목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안수기도를 받음으로써 마음의 평안함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의 속담중에 잘 죽는 것이 다섯가지 복에 든다고한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 스피어는 “All is well that ends well” 이라하여 끝이 좋으면 모 든것이 잘 된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잘 죽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다가 죽었는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포로가 되어 화형을 당한 쥘리안, 그리고 3.1 운동에서 체포되어 옥사한 우리의 유관순여사, 축석루에서 적장을 안고 의사한 황진이는 모두 10대의 소녀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아 우리 발걸의 등 불이 될것이다. 일제의 생체실험 대상이

되어 죽은 우리의 애국시인 윤동주, 그리고 같은 26세에 폐병과 신랄한 비평속에 죽음을 맞이한 영국의 의사시인 존 키츠등 이 남긴 주옥같은 시는 오늘날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곤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려 자살을 감행한 화란의 천재 화가 반 고흐 의 작품은 오늘날 수많은 미술관을 장식하고 있으며, 폐병으로 요사한 폴란드의 작곡가 쇼팽의 음악도 수없이 많은 음악의 전당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이들은 모두 30여세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업적은 우리의 문화속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생활을 좀더 풍요하게 할것이다. 쇼팽의 음악은 상당히 감성적이어서 그를 건반의 시인이라고도 한다.

물론 세상의 모든 천재들이 이와같이 불운속에서 생을 마감한것은 아니다. 영국의 계관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은 그의 재능을 일찌기 인정받아 여유로운 인생을 보냈다. 무균술과 마취술이 없던 시기에 영국의 국왕 조지 4세의 뇌종양을 성공적으로 수술해 낸 영국의 저명한 외과의사 애슬리 쿠퍼도 그의 특출한 의술로 인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당대 최고의 명성을 만끽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현미경을 통하여 미생물의 세계를 처음 발견한 화란의 과학자 레벤 과 중세기 문예부흥시의 천재 화가이며 조각가였던 마이클란제로도 각기 90여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수명을 유지하며 명성과 부를 얻어냈다. 이와같이 인생의 종말은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이 모든 천재들의 종말이 어떠하였는지 또는 그들 수명의 장단을 막론하고 그들의 업적만이 우리의 역사속에 길이 남는다.

(다음호에 계속)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톤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우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통일아카데미 4편>



#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일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미 동부시간)

**ZOOM ID: 861 0297 1313**

**Password: Bostonnuac**



최광철 KAPAC 대표 및 민주평통 운영위원

**최광철 KAPAC 대표 및 민주평통 운영위원 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오클라호마 주립대 경영대학원 MBA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위원  
Bright Light Trading 대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민 신청료 인상

10월2일 (금) 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이민국의 전면적인 신청료 인상과 몇가지 개정에 대한 실행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지난 9월 29일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몇몇 친이민단체들이 신청한 이번 개정안 실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10월2일부터 실행하려던 개정안은 이민신청료를 평균 20% 인상하는 것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5 calendar day 안에 처리해야 하는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도 15 business day 안에 처리하게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4일 정도 심사기간이 늘어가는 점, 저소득층에 대한 신청료 면제를 없애거나 자격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점, 평균 20% 인상이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신청자의 수가 많은 영주권과 시

민권 신청과 관련된 신청료를 거의 두배 이상 인상시킨 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청료 수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민국은 지난 2016년 신청료 인상 이후에도 매년 10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신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절차적인 문제, 신청료 인상이 이민국의 정상적인 운영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인상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료 인상 등의 이유로 연방법원은 이번 개정의 실행의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매번 신청료 인상이 논의되면 논란은 있어왔습니다. 더 받겠다는 쪽과 덜 내겠다는 쪽의 갈등은 어찌보면 당연하겠지만 이런 논란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되

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과 개정안을 보면 정말 이민국 정상 운영이 주목적인지 심하게 의심이 됩니다.

미국의 이민은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한없이 열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라 이익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인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이 시작되고 법원의 인상요인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자료 제출 요구에 이민국은 2번이나 날짜를 연장해 가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정도로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되물었을 때 그냥 이 정도가 충분합니다 라고

답한것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수치로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들지만 '적당하다' '합리적이다' 등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시민권 신청료와 영주권 신청료를 인상할 때는 상식적으로도 '충분' '적당' '합리' 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시민권 신청료는 기존의 \$640 (지문채치료 \$85 포함하면 총 \$725) 에서 \$1,170 (지문채치료 \$30을 포함하면 총 \$1,200) 로 영주권은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와 지문채치료 포함) \$1,225 에서 영주권 신청료 \$1,130 에 추가로 여행허가서 (\$590) 와 노동허가서 (\$550) 신청료를 추가로 따로 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I-485) 신청 시 기존 \$1,225 에서 최대 \$2,300 로 인상이 되는 것이죠. 4인가족이 영주권

을 신청하려면 신청료만 만불 가까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습니다. 망명 (Asylum)이나 난민 (Refugee) 에 대한 배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민법을 하면서 몇번의 신청료 인상을 경험했지만 이번 같이 인상을 바로 앞두고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봅니다.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어지간해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바로 앞두고 실행하려 한 것도 눈썹을 추겨올리게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다고는 누구도 말 못할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선전에 실행을 하든 취소가 되든 결정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이기든 이번 개정안을 취소할 정치적 이유를 찾지 못하겠죠.

10월 4일 - 10월 10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b></p> <p>●운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나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 하세요.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던 돈도 무난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힘들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p>	<p><b>소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b></p> <p>●운수: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세요. 과한 욕심을 내다가는 그나마 들어올 이득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애정: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길게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p>	<p><b>범띠   모든 일에는 순서가</b></p> <p>●운수: 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니 때를 기다리세요. ●금전: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해두면 도리어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풀릴 것입니다. ●애정: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p>
<p><b>토끼띠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b></p> <p>●운수: 이런저런 걱정으로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용기내서 해보세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 때때나 계약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부부가 화목하니 가정에 온기가 듭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p>	<p><b>용띠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b></p> <p>●운수: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려면 가급적이면 일찍 귀가 하세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들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9일 길일. 7, 10일 주의.</p>	<p><b>뱀띠   시간을 두고 천천히</b></p> <p>●운수: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서투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소외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대인관계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금전: 현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애정: 한 번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야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6, 9일 길일. 8, 10일 주의.</p>
<p><b>말띠   생각했던 것보다</b></p> <p>●운수: 오래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다시 한번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의 힘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세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5, 10일 길일. 6, 9일 주의.</p>	<p><b>양띠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b></p> <p>●운수: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가족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과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주머니가 비게 됩니다. ●애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5, 6일 길일. 7, 10일 주의.</p>	<p><b>원숭이띠   희비가 교차하는</b></p> <p>●운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누구 때문에는 기쁘고 웃을 일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는 마음이 아프거나 슬플 일이 있겠습니다. ●금전: 평소보다 소비가 늘어납니다. 특히 순간적인 기분이나 체면유지를 위해 지출하기 쉽습니다. ●애정: 이성의 유혹이 따르는 때입니다. 충신을 잘하지 않으면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9일 길일. 5, 8일 주의.</p>
<p><b>닭띠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b></p> <p>●운수: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어떤 일이든 남보다 빨리 시작해서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나가야 할 돈이 늘어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게 되니 기분 좋게 지출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선 믿어주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8일 길일. 6, 10일 주의.</p>	<p><b>개띠   여러모로 얻는 것이</b></p> <p>●운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세요. 대인관계로 인해서 여러모로 얻는 것이 클 것입니다.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금전적인 이익도 따를 것입니다. ●애정: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 상대에게도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서로간의 대화도 잘 통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6, 8일 길일. 4, 7일 주의.</p>	<p><b>돼지띠   자신의 삶에 약이</b></p> <p>●운수: 당장 듣기 좋은 사랑발림 같은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쓴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자신의 삶에 약이 되어줍니다. ●금전: 길흉이 반반으로 뒤섞여서 오는 운세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합니다. ●애정: 사랑보다 정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이라는 생각이 되면 더 정이 들기 전에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올 추석 예능가, 라면에 빠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올 추석 연휴 예능가 테마로 '라면'이 떠오른다.

먼저 MBC TV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라면을 소재로 한 추석 파일럿 예능 '불빨간 라면연구소'를 방송한다.

'불빨간 라면연구소'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기발한 라면 레시피를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서장훈, 성시경, 김종국, 하하가 MC로 활약할 예정이며, 여기에 국내 유명 식품기업인 오투기 회장의 장녀이자 뮤지컬 배우인 함연지까지 합류해 기대감을 더한다.

간간한 입맛으로 유명한 서장훈은 촬영 내내 냉정하게 라면 레시피를 평가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요리 실력을 뽐내온 성시경은 요리 연구가 뽑치는 질문들로 도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몸 관리 때문에 평소 라면을 즐기지 않는다면 김종국은 쉼 새 없이 라면을 흡입해 웃음을 안겼고, 함연지는 첫 MC 도전에도 자연스러운 예능감을 발휘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불빨간 라면연구소'는 오늘 밤 10시 40분 1부, 30일 오후 8시 10분 2부 방송한다.

SBS TV는 '대국민 공유 레시피, 라면 당기는 시간'을 30일과 10월 1일 오후 6시 40분에 편성했다.

'라면 당기는 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동네 분식집을 위해 연예인

들이 최고의 라면 레시피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승자의 레시피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종면'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면을 좋아하는 방송인 김종민과 '셀프 레시피의 달인' 박기용, 녀석과 강남 등 4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최고의 라면을 만들기 위한 대결을 펼친다.

## 환불원정대 데뷔곡은 작곡가 라도의 '돈 터치 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로 결성된 걸그룹 환불원정대의 데뷔곡은 작곡가 라도가 쓴 '돈 터치 미'(Don't touch me)로 낙점됐다.

환불원정대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돈 터치 미'를 활동곡으로 정하고 다음 달 10일 음원을 발표하기로 했다.

'돈 터치 미'는 강렬한 도입부와 그루브한 매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엄정화, 이효리, 제시, 화사 등 모든 멤버가 마음에 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2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 시청률은 9.7%-12.2%를 기록하며 환불원정대 프로젝트의 꾸준한 인기를 증명했다. 또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작곡가 라도의 이름이 오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말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편을 읽고 또 읽으며 며칠을 깊은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대 시인의 가슴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삶은 생각처럼 그리 만만치 않음을 깨닫는 오늘이다. 서로 부딪히면서 스치는 인연에 웃음과 울음을 내고 생채기도 그어가며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서로 치유하며 사는가 싶다. 이 세상에서 홀로이지 않은 것이, 외롭지 않은 것이 그 무엇 하나라도 있을까. 서로 마주 보고 있어도 외롭고 고독한 것을 애써 변명하지만, 세상과 마주할수록 사람과 마주할수록 더욱 깊이 사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병인가 싶다.

사람으로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는 우리의 세상인가 다행이다. 그래서 살 만한 세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아닐까 싶다. 저 들꽃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 오지 않는가.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꺾여질 듯 꺾여지지 않고 바

람을 타는 저 들꽃을 보면 행복해지지 않던가. 흔들리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저 들꽃을 보면.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나처럼 하늘을 본다. 그 무엇과도 경계 짓지 않아 좋은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내 곁에 있는 것들도 모두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마주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들꽃과 들풀도 햇살 가득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다. 자연과 함께 마음을 마주하면 속에 가득 찬 욕심이 조금씩 녹아내린다. 나도 이 커다란 우주 안에서 하나의 작은 자연임을 깨닫는 순간 행복이 저절로 몰려온다. 굳이 그 어떤 종교를 들추지 않아도 저절로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흘러나온다.

살면서 하루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면, 세상과 바쁘게 걸어온 험덕거리리는 숨을 곁따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계절과 계절의 샛길에서 바쁘게 옮기던 발걸음의 보폭을 천천히 옮기며 무심히 지나치던 자연과 마주해 보자. 들가의 들풀과 들꽃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바람 그 바람을 타며 즐

기는 나뭇잎들을 가만히 만나보자. 잊고 지내던 그들의 얘기들이 바람을 타고 귓가에 하나 둘 들려오리라. 그동안 듣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리움의 언어들이 가슴으로부터 하나 둘 올라오리라. 내 가슴에서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내 그리움의 언어들이 하나 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으로 고운 시어에 눈물이 고인다. 아, 시인은 어찌 저리도 맑디맑은 영혼을 노래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리는 들꽃을 얼마를 보았던가. 저 흔들리는 꽃에서 바람을 보고 비구름을 보았을 시인의 맑은 영혼이 가슴속을 파고든다. 그대 피고 지는 꽃을 보면 우리네 삶과 어찌나 닮았는지 가끔 들꽃과 들풀과 마주하면 인생의 긴 여정을 느끼게 된다. 땅의 기운과 하늘의 소리로 들꽃과 들풀은 욕심부리지 않아도 잘 자라 꽃피우고 열매 맺는데 어찌 이리도 사람만이 안달하고 복닥거리며 사는가 싶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어찌 이리도 사유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대 사랑이란 이처럼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은 것이라.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아 또 마주하는 삶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사랑이란 보내는 가슴이나 남아 있는 가슴이나 떠나는 가슴이나 모두가 아픈 인 것이다. 살면서 가슴 한편에 시린 사랑 하나쯤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시린 가슴 다독이며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 오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다 보면 문득문득 지난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일 게다.

"젓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달라고 한다. 도대체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모두가 원하는 것일까. 행복의 색깔은, 모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제는 인생이란 것이 어떤 빛깔인지를 어렵듯이 알아간다. 그 어떤 삶일지라도 평범한 삶이란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원하는 원치않던 간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삶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삶은 그래서 슬픔도 행복도 따로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삶은 그저 사는 것이다. 그 빛깔이, 색깔이, 모양이 어떻게 간에 자기가 누린 만큼의 것이란 생각을 한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조사助詞의 역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애독자 한분이 계신다. 우리교회 김형범 장로님이시다.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명문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역임하셨다. 선생께서 매주 질문을 찾아 읽으시는데, 어찌다 놓칠 적엔 보내달라 청하신다. 한국어가 전공이셨기에 그런 것만은 아닐터. 질문에 대한 애정이라 해야겠다. 하지만 때론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도해 주신다. 글내용은 고사하고, 비문에 문법과 맞춤법이 엉터리일텐데도 말이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기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감사하다는 말씀만 전한다. 이해인 수녀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르른 소나무 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이해인, 말의 빛 중에서)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김훈의 소설 갈의 노래 첫구절이다. 작가는 이 문장에서 고민했단다. '꽃은' 이라 써야 하는가? 아니면 '꽃이' 라 적어야 하나. 조사助詞가 주는 느낌은 사뭇 다른데, 의견과 정서를 배제한 사실만의 세계를 묘사하고자 했다는

거다. 조사助詞는 한국어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

여행이 떠났다. 오타는 아닌데, 한국 광고문안이다. 바이러스덕에 여행을 쉽게 떠날 수 없다. 여행이 일상에서 멀어졌다는 말이다. 역시 조사의 역할이 미묘하다. 조사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이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 가신다. 아주 오래된 또 다른 예이다. 초등학교 적에 선생님께 들었다. 가는 조사인데, 조사가 방과 불으니 엉뚱해 진거다.

일본어에도 조사가 있다 했다. 冬の花를 예로 들었다. 그림같은 글씨를 보는 듯 싶은데, 후유 노 하나로 읽는다 했다. 겨울의 꽃이라는 말이고, 겨울꽃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다. 조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조사를 postposition이라 던데, 영어엔 조사가 있던가. 조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

다. 조사는 홀로 설수는 없다. 한국어에선 더욱 그러하다.

지난 달인가. 청와대 비서들이 대거 사표를 냈다고 했다. 그들은 참모일 것이고, 조연助演이며, 조사助事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빠지면 문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참모들은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하긴, 한국어는 장관님은 소설 쓰시네 라 했다던가. 소설을 쓸적에 그에게는 조사가 필요없는 모양이다.

세종대왕은 참모들을 잘 다스렸고, 용인술에 탁월했다고 했다. 명군名君이시다. 한국에선 곧 한글날이다.

질문을 지으면서 문법의 어려움만 털어놓는다. 조사助詞를 제대로 부릴 줄 몰라 그런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따가 9:24)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 휴람

상안검 or 눈썹거상술 <del>187만원</del> <b>154만원~</b>	하안검 + 지방재배치 <del>187만원</del> <b>154만원~</b>	안면거상술 +목거상 <del>880만원</del> <b>660만원~</b>			
이마 거상술 <del>495만원</del> <b>330만원~</b>	코 성형 <del>363만원</del> <b>264만원~</b>	지방이식 +PRP <del>330만원</del> <b>220만원~</b>	가슴성형 <del>660만원</del> <b>550만원~</b>	지방흡입 <b>220만원</b> ~	이물질 제거 <b>110만원</b> ~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 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	최성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유신형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톨릭의과대학 졸업 노상호성형외과	김용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라플성형외과	최원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	박차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리븐유엔메디칼그룹



**김수남**  
 하의의료사업담당

**617.949.176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사랑플러스병원>



# 관절염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다양한 외상으로 인해 관절에 손상을 입습니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의료네트워크 사랑플러스병원의 도움을 받아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에 손상이 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에 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통증이 지속되면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통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연령대는 50~60대지만 비교적 젊은 20~30대 분들도 관절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은 뼈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100여 개가 넘는 관절이 있고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나 부종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관절염이란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연골이 망가져서 발생합니다. 관절에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며, 관절이 약해지고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보통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관절염 종류에는 류마티즘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이란?**  
류마티즘은 관절에 염증이 난 흔한 관절염으로, 30~50세 사이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손발의 작은 관절에 좌우 대칭으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은 발생 후 최소 2년 내 치료를 해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 내 연골의 손상이나 노화로 인해 뼈와 인대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40세 이후 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척추, 무릎 관절에서 발생하며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절염의 증상은 주로 통증의 발생인데요. 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을 구부리거나 펼 때 뻣뻣함이나 통증이 느껴지고,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습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고 이유 없이 무릎이 부을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치료 목적은 손상된 연골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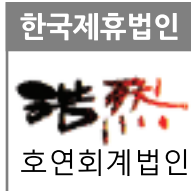
복시키며 관절의 통증을 해소하고 일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 관절염은 수술 없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 질환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세일기간: 10월 말까지

# 추석맞이 특별세일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년 워런티

무료 딜리버니

확실한 가격 매칭!

## Panasonic MAJ7

- 82년 전통의 안마의사 첨단 기술의 결정체
- 3명의 프로 안마사의 강력한 지압효과, 158가지 지압기술 탑재
- 목, 등, 허리 및 발 마사지까지.. 프로안마사의 손길!
- 전신 마사지 서비스 제공
- REAL PRO만의 독창적인 온열 마사지
- 거북목 치료와 전신 통증, 허리 통증 치료에 효과



파나소닉  
MAJ7  
**\$159.00**  
+Tax /60month



온수매트의 **철대강자**  
경동 **Navien**

- ✓ 1mm 두께의 초슬림 매트: 더 얇고 따뜻하게
- ✓ NTC 테크놀로지: 온도 제어 기술 구현
- ✓ 완벽한 이중(좌/우) 분리난방: 한 침대 위에 두 개의 온도! 각자의 취향에 맞게!
- ✓ 살균모드: 세균 및 미생물의 번식 방지
- ✓ 고온 모드 알림기능 / 자동정지 타이머

이달의 특별 혜택

- ◆ 고급스러운 디자인
- ◆ 강력한 난방효과
- ◆ 뛰어난 투습력으로 쾌적추진

특히받은 무자계 발열선  
전재파 NO!  
일반 열선 NO!

-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숙면**  
전통 온돌 문화의 새로운 매트역사!  
혁신적인 난방의 진화!
1. 한국형보다 30% UP!
  2. 뒷면 미끄럼 방지처리
  3. 두께 변화: 더 두꺼워짐
  4. 매트 가장자리 보강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Appointment Only  
예약전화  
781.862.6867

**HITRONS**<sup>TM</sup>  
MASSACHUSETTS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www.hitrons.com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96) 주식시장 회복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코로나로 지난 2월 말에 주식시장이 34% 폭락했다. 폭락하는 데 걸린 기간은 단 23일이다.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빠르게 폭락했다. 그 당시 신문과 방송 매체는 어김없이 “폭락(Plunge)”, “빠른하락(Tumble)”, “피바다(Bloodbath)”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투자자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 투자자는 나의 소중한 자산을 주시하면 불안한 마음을 떠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투자한 돈을 현금으로 바꿔야 하나 마음이 연일 갈팡질팡했었다.

그러던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다. 회복하는 데 걸린 기간은 97일이다. 역사상 2 번째로 빠르게 회복한 것은 물론 현재 (8/21) 주식시장은 6.44% 상승했다. 폭락했던 주식시장에서 필자는 주식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고 몇 주간에 걸쳐서 설명했다. 발행했던 재정 칼럼 몇 개 부분을 인용한다.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간다. 가는 도중에 이상 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몹시

흔들린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 때문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는 않는다. 주식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목적지를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이 변할 때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치명적으로 될 수 있다.

\*매일 접하는 소식이 비관적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미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술주, 9/11, 금융위기, SARS (2003), Swine Flu (2009), MERS (2012) 그리고 Ebola (2014)로 등으로 시장이 폭락했었지만 결국에는 폭락하기 전보다도 더 상승했다.

\*희망의 등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분명 지나갈 것이다. 과거 오랜 주식시장 역사가 항상(ALWAYS) 그 래왔기 때문이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처음 부터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  
\*주식시장은 폭락한 최저점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왔다.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폭락했던 주식시장을 살펴보자 .

\*부자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저렴하게 산 주식이 회복하고 상승하면 더욱더 큰 부자가 된다 . 이와 반면 가난한 사람은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선 모든 방송 매체를 잠시 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재미 있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훨씬 유익하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송 매체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마음이 다급해진다.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을 손으로 잡는 절박하고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주식시장은 암울했던 시기에도

회복된다고 말한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과거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항상 회복한 것은 물론 더 상승했던 오랜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에 매우 민감하다.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는 기억 속에 희미해진다. 단 1~2년 전의 주식시장도 기억하지 못한다. 2018년 말에 주식시장이 20%나 하락했다. 그 후 시장이 4개월 만에 다시 회복되었다. 그리고 2019년 주식시장이 31%로 상승했던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중국과의 갈등, 대통령 선거, 급격하게 너무 올라간 주식시장, 등을 말하며 투자하지 못한다.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만을 찾기에 결국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주식시장의 어떠한 변화에도 부자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한다. 결국에는 더욱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8세 풍월주風月主 춘추공春秋公(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춘추, 신라의 제29대 태종무열왕, 그도 왕이 되기 전에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의 위치에 있었다. 18세 풍월주인 김춘추의 화랑세기 기록은 아주 간략하다. 이는 그의 업적이 미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반대하였기에 “왕의 대업은 사책(史冊)에 있어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김대문이 춘추공조를 집필하면서 김춘추의 두 번째 부인인 문명황후에 관한(의한) 기록인 “문명황후사기(文明皇后私記)” 도 참고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김유신은 자신보다 어린 김춘추가 후일 왕위에 오를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음이 화랑세기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유신은 만 17세인 612년에 풍월주의 위에 올랐다. 이는 유신이 이미 ‘태양과 같은 위용’ 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만호태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311) 602년생인 김춘추는 당시 10살이었다. 그리고 진평왕은 45세로 딸만 둘(셋 또는 넷) 뿐이었지만 충분히 왕자를 볼 수 있는 나이인데도 김유신은 김춘추에게 신묘를 자처하며 군공으로 받들었다(화랑세기 내용에서 표기된 군공의 의미는 풍월주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10살 밖에 되지 않은 김춘추가 대규모의 화랑도를

지휘 통솔하기란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부모는 용수와 천명공주이며, 천명은 진평왕의 딸이다)로 성골의 골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골의 신분으로 왕이 된 첫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는 없는데 진지왕이 폐위될 당시 아마도 죽음이 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본다(죽음이 되지 않았다면 김춘추는 성골이다). 하지만 진평왕이 용수를 사위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다만 공주에게로 이어지는 왕위를 꺼린 것인지, 성골로 이으려고 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결국 진평왕은 용봉의 자태가 넘치는 왕자로 태어난 딸 덕만을 차기 왕으로 키웠다. 그가 632년에 즉위하니 신라의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철숙과 석품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김유신과 김춘추, 김염장 등 화랑도들에게 곧 진압되었다(631년). 선덕여왕은 647년까지 재위했는데 차기왕으로 김춘추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진평왕의 동생인 국반갈문왕과 월명부인 박씨의 딸 승만공주가 왕위를 이었다(제28대 진덕여왕). 여기에서도 여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불만을 품은 비담이 난을 일으켰다.

비담(毗曇)의 난(亂)은 삼국사기(김유신열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647년 1월, 즉 선덕여왕의 재위 마지막해에 상대등 비담이 염종(廉宗) 등과 함께 왕위가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으로 계승되는데 반감을 가지고 일으켰던 난이다. 난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기도 하다. 즉 ‘여주불능선리(女主不能善理)(여왕은 잘 다스리지 못한다)’ 라는 명분을 기치로 선덕여왕을 폐위하려 했다는 견해이다. 선덕여왕은 비담의 난이 채 평정되기도 전에 사망하였다. 그래서 반란군에게 피살되었다는 설과 선덕여왕이 자신의 죽음과 장지(葬地)를 미리 언급한 점을 들어 위중한 상황이었지만 자연사 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결과적으로 김유신과 김춘추가 지휘하는 왕군(王軍)들의 승리로 난은 진압되었고 비담과 염종 등 난의 주모자들은 구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래서 그런지 비담은 그 출신을 잘 알 수 없다. 645년 11월에 귀족회의 의장인 상대등에 올랐던 것을 보면 진골 신분이었음은 분명하다. 이에 앞서 642년(선덕여왕 11년)에 서쪽 변경의 40여 성(城)을 백제에게 빼앗기고 대야성(大野城) 함락되자 신라는 당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때 당태종이 세가지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여자가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나라가 업신여기고 쳐들어 오기에 여왕을 바꾸어야 한다” 는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비담의 난이 선덕여왕을 폐위하려 했다고 보는 견해는 이 기록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이 비담의 난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유성낙하’ 와 ‘허수아비’ 이다. 반란군의 주모자 비담과 염종은 명활성(明滑城)에 진을 쳤고, 왕군들은 월성에 진을 치고 10여일 간이나 서로 공수(攻守)를 했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한밤

중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이에 비담은 반란군에게 “별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피를 흘린다 했으니 이것은 여왕이 패할 징조이다” 라며 반란군을 독려하자 그들의 사기는 땅을 진동하였다. 그러자 김유신은 “길흉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오직 사람이 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하며 왕을 안심시키고 나서 허수아비에 불을 당기어 연기에 실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 갔다고 선전하였다. 또한 백마를 잡아서 별이 떨어진 곳에 제사를 지내며 “하늘의 도는 양이 강하고 음이 약하지만, 사람의 도는 임금이 높고 신하가 낮습니다. 그것이 바뀌면 난이 되는 것입니다. 비담 등이 신하로서 임금을 도모하며 아래서 위를 범하니, 이것은 이른바 난신적자로서 사람과 신령이 함께 미워할 것이요, 천지간에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하고 나서 병사들을 독려해 647년 1월 17일 반란군을 진압하고 주모자들의 구족을 멸하였다. 한편 선덕여왕은 난 도중인 1월 8일에 죽었고 차기 왕위는 진덕여왕이 이었다. 진덕여왕은 왕사가 없었으니 후손이 없었고 차기 왕위는 국민의 추대를 받은 알천의 사양으로 김춘추가 즉위하였다.

311) 만호는 동륜태자의 비로 진평왕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만호의 딸 만명(아버지는 속흘종)이 김서현과 아합하여 김유신을 낳았으니 유신은 만호의 외손자이다.



#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 경축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제4353주년 개천절을 경축하며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하지 못하고, 한인 여러분과 뉴잉글랜드 지도급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및 공연을 동영상(<https://bit.ly/kcgboston>)으로 만들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



## NAMU •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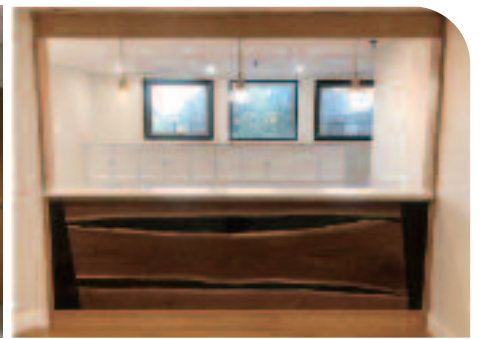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 SERVIC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 WHY NA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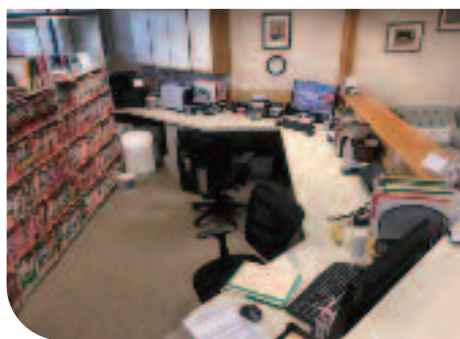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